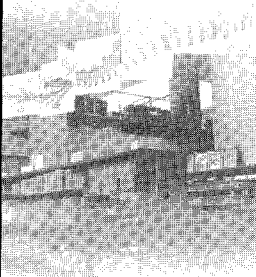


## 밴쿠버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스토리타임



### 이 연 옥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비지팅스칼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idisteel@hanmail.net



필자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문헌정보학대학원(The School of Library, Archival & Information Studies)에서 비지팅스칼라(Visiting Scholar)로 머무르고 있다. 이곳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서비스와 관련한 수업을 듣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투어하고 있다. 지난 학기 동안은 주로 어린이서비스와 어린이자료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도서관현장의 어린이프로그램을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경험을 한국의 어린이서비스 담당 사서들과 나누고 싶다.

필자가 주로 방문한 도서관은 밴쿠버시의 공공도서관과 분관들이다. 밴쿠버공공도서관(Vancouver Public Library)은 중앙관과 22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관의 경우 도서관의 건물 내 분리된 어린이실(Children's Room)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분관에서는 어린이코너(Children's Corner)를 마련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밴쿠버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아기(baby), 유아(toddler), 취학전아동(preschooler), 취학아동(school age children)으로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부모와 양육자, 어린이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들에게도 서비스하고 있다.

어린이서비스 중에서 밴쿠버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서비스가 바로 스토리타임이다. 스토리타임은 어린이들을 책의 세계로 열어주는 도서관활동으로 어린이서비스의 꽃으로 간주된다. 사서는 스토리타임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하고, 도서관 방문을 고무시킨다. 또한 스토리타임을 통해 부모들과 접촉하고 이들을 교육하여 독서준비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스토리타임이 어린이들의 초기 문해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사서들이 스토리타임을 기획하고 있다. 사서들은 스토리타임에서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재미와 동시에 문해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 밴쿠버시의 공공도서관은 스토리타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독서와 문해를 위한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스토리타임 담당 어린이사서들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독서와 문해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스토리타임에 대한 강조는 어린이사서를 양성하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문헌정보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관찰되었다. 필자가 수강한 어린이서비스(Service for Children)라는 강좌와 미취학아동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초기문해교육(Services for Families and Early Literacy in the Preschool Years)이라는 강좌에서도 수강생들은 스토리타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고 있었다.

밴쿠버공공도서관은 0개월부터 18개월의 아기들을 위한 베이비 스토리타임(baby time), 18개월부터 3살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스토리타임(toddler storytime),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스토리타임(preschool storytime), 모든 연령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스토리타임(family storytime)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0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아기와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스토리타임인 맨 인 더 문(Man in the Moon)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열린다.

이들 프로그램은 중앙관의 어린이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각 분관의 어린이사서들이 함께 기획한다.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기획되는데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특별한 날이 있을 경우 그 날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이 기획된다. 도서관 내에서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프리스쿨, 데이케어센터,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 등에 사서들이 직접 방문하여 스토리타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밴쿠버공공도서관은 영어 뿐 아니라 각 분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인구 구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비롯하여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광둥어와 북경어), 필리핀어, 편잡어로 스토리타임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바이링갈(bilingual) 스토리타임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편, 어린이사서들이 스토리타임을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스토리타임에 활용할 책 선정이라고 밝힌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사서들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하는지를 필자가 직접 질문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왔다.

- 많이 읽는다.
- 도서관에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책을 관찰하고 검토하며 읽는다.
- 어린이책과 관련한 리뷰지나 저널을 늘 읽는다.
-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밴쿠버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 회의에 배정된 북타임(Booktime)에서 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 밴쿠버공공도서관이 선정한 읽어주기에 좋은 어린이책 목록(Booklist of best stories to read aloud)을 참고한다.
- 좋은 책을 리뷰한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검토한다.
- 어린이책을 리뷰하는 사서들의 사이트를 활용한다. 여기서 동료 사서들이 추천하는 책을 참고한다.
- 다른 사서들이 활용했던 책 목록을 검토한다.
- 교사나 부모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책을 알게 된다.

이처럼 밴쿠버공공도서관의 어린이사서들은 스토리타임에 활용할 책을 선정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사서들이 가장 많이 한 대답은 '어린이책을 읽는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사서가 '어린이 책을 읽는 데 가장 치중한다'는 이와 같은 대답은 참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있는 메시지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한편, 스토리타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책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첨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밴쿠버시 어린이사서들의 스토리타임에서도 초점은 책이지만 책과 관련한 활동으로 동요(thymes)부르기와 율동, 손가락놀이(finger play)와 같은 활동들을 추가하고 있었다. 또한 사서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puppet)을 활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용판이나 자석판과 같은 스토리보드판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담당 사서들은 스토리타임에 활용할 책과 더불어 인형, 노래, 보드판 등을 따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진행되는 스토리타임은 담당하는 사서에 따라 어떤 도서관에서는 인형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또 어떤 도서관에서는 노래와 율동을,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손가락놀이나 스토리보드판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기본 구성은 여는 노래(Hello Song), 그림책 읽어주기, 노래와 활동, 손가락놀이 혹은 스토리보드판을 통한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와 활동, 그림책 읽어주기, 굿바이송(Goodbye Song) 등의 활동을 기본 순으로 하고 있었다. 여기다 간혹 만들거나 그리기와 같은 활동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보통 스토리타임 시간은 30분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책을 읽고 난 뒤 만들거나 그리기 활동이 추가되면 시간은 더 길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밴쿠버시의 어린이사서들은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진 스토리타임을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재미를 배우게 하고, 책을 읽는다는 것이 즐거운 놀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관찰한 밴쿠버공공도서관의 스토리타임 중에서도 매우 인상적이었던 마운트플레전트(Mount Pleasant)분관의 스토리타임에 대한 경험담을 자세히 전하고 싶다.

밴쿠버공공도서관 마운트플레전트분관은 대형 상가 안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도서관 주변은 상가로 뒤덮여 있어서 언뜻 보게 되면 도서관이 서점처럼 보였다. 여기도 어느 분관이나 마찬가지로 어린이코너가 있으나 이 분관은 스토리타임을 할 만큼의 도서관 내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이 분관은 특이하게도 도서관 앞 상가통로에서 스토리타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스토리타임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사서들이 상가통로에 임시무대를 마련하였다. 무대라고 하기엔 초라했다. 스토리타임 안내판을 세우고 의자를 가져다 놓는 게 전부였다. 스토리타임을 담당하는 사서는 스토리타임에 활용할 책과 인형, 악기인 기타를 준비하였다. 스토리타임은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데 10시부터 어른들과 아이들



▲ 밴쿠버공공도서관 마운트플레전트분관 입구

이 유모차와 함께 하나 둘 모여 들었다. 10시 20분쯤 되니 대형 상가 통로는 어른들과 아이들로 꽉 찼다. 어림짐작으로 보건데 어른 아이 합쳐서 5-60여명은 되어 보였다. 밴쿠버의 다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듯 캐나다인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인종도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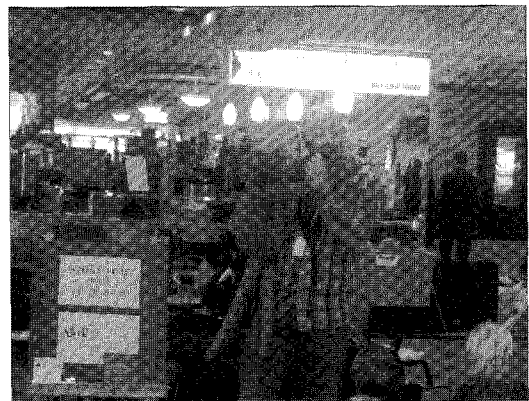
아이들은 무대를 중심으로 바닥에 앉았다. 어린이 사서가 오프닝송으로 시작을 알린다. 스토리타임 담당사서는 기타반주로 흥을 드높인다. 아이들은 노래를 흥겹게 부르고 울동도 따라 한다. 동요와 울동 사이사이에 책을 읽어준다. 노래를 부를 때는 무대 주변 상가의 카페 주인도 함께 흥얼거리고, 스낵코너 주인도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인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어 선다. 어린이사서에 집중하고, 책에 집중하며 노래 부르고 울동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대형 상가에서 열리는 도서관의 스토리타임은 거리에서 펼쳐는 즉석 공연 처럼 보였다.



▲ 밴쿠버공공도서관 마운트플레전트분관의 스토리타임

30분이 다 되어갈 즈음 마지막 굿바이송을 부르고 스토리타임은 막을 내렸다. 스토리타임에 참석했던 아이들은 다시 도서관 앞으로 긴 줄을 섰다.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다. 스토리타임이 끝나면 담당사서는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스탬프를 찍어준다. 마운트플레전트분관에서의 어린이사서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서 아이들 손과 팔에 스탬프를 찍어주었다. 그리고 인사도 잊지 않는다. '오늘 참가해 줘서 고맙다', '너 오늘 장화가 정말 멋지군', '모자가 멋져', '오랜만에 왔네?' 등 아이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모들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어린이사서는 아이들의 키 높이를 맞추며 참석할 모든 아이들에게 정성껏 스탬프를 찍어주었다. 이렇게 스탬프를 받은 아이들은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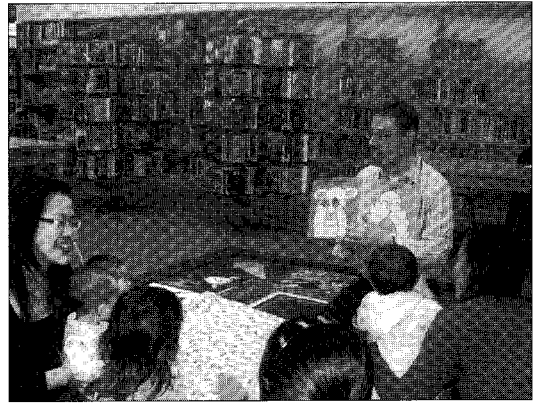


▲ 밴쿠버공공도서관 마운트플레전트분관의 스토리타임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사서

필자는 사서와 아이들 및 부모들과의 대화 그리고 스탬프를 찍어 주는 일을 오랜 동안 지켜보았다. 한 참을 기다려야 담당사서를 만날 수 있었다. 사서와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타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스토리타임 담당사서는 17년차 어린이사서이며 18살 아들과 10살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도 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자신은 어린이사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은퇴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진행하던 그의

모습과 자신의 일을 너무 사랑한다며 스토리타임을 하면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의 얼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정말 행복해보였다. 그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토리타임에서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운트프레전트분관은 더 넓고 멋진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갈 예정에 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 대형상가 안에서의 스토리타임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마운트프레전트분관 외에도 콜링우드(Collingwood)분관의 아기들을 위한 스토리타임, 브리타니아(Britannia)분관의 미취학아동 스토리타임, 키칠라노(Kitsilano)분관 등 많은 도서관들의 스토리타임이 기억난다. 이들 스토리타임에서의 아이들과 부모들에 대한 관찰, 담당사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 스토리타임은 지역 사회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밴쿠버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선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독서(reading)와 문해(literacy)를 위한 주요한 사회적 기관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 밴쿠버공공도서관 콜링우드분관의 아기들을 위한 스토리타임



▲ 밴쿠버공공도서관 브리타니아분관의 미취학아동 스토리타임